



-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 2019년 4월 28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796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jb.ucatholic.or.kr

6지구 - 중산 성당



설립 2001년 10월 5일 전화 사무실 031-975-3333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2

제1독서 사도 5,12-16

화답송 시편 118(117),2-4,22-24,25-27 가(◎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여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2독서 묵시 1,9-11 나.12-13,17-19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요한 20,27 참조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김명식 사도요한 신부
운정 부주임

참 인간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 사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왜 요한복음서 저자는 자칫 토마스 사도를 폄훼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복음 안에 기록하였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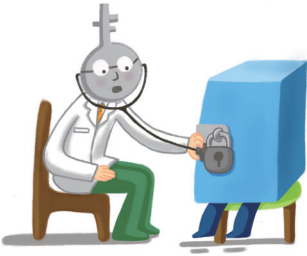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는 예수님은 그냥 아픈 시늉만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고통 당할 때 예수님은 이미 인간 예수의 몸에서 벗어나 하늘 나라로 가셨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즉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과 육체를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토마스의 의심을 복음에서 표현함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죽으셨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토마스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요한복음에 나타는 예수님은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이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토마스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토마스의 의심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은 그 예수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고 영광스럽게 부활한 그 예수는 우리 인간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았고 십자가의 상처를 지닌 그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처를 우리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고통 받는 이들과 굶주린 이들 그리고 불의에 박해 받는 이들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토마스는 그들 가운데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통 받는 이들과 굶주린 이들 그리고 불의에 박해 받는 이들의 상처를 보고 만져보면서 토마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



창고의 일생

한 상자가 있었다. 육면이 꼭 막힌 상자였다.

어느 날 상자는 속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여 연장 그릇(병원)을 찾아갔다.

먼저 외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의사인 열쇠가 말했다.

“들여놓기만 하고 내놓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열어드릴까요?”

상자는 손을 휘휘 내저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안의 것을 누구라도 알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안과로 가서 진찰을 받았다. 의사인 장도리가 말했다.

“창이 없으니 캄캄할 수밖에요. 어느 한쪽을 좀 열어드릴까요?”

상자는 이번 역시 휘휘 손을 저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려고요. 그만두십시오.”

상자는 답답한 속을 그대로 안은 채 이리 ‘쿵’ 저리 ‘쿵’ 부딪치면서 병원을 나왔다.

얼마 후, 죽을 때가 된 상자는 멀리서 빛을 쏘아 내보내고 있는 너무도 멋진 상자를 보았다.

상자가 자기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자물쇠한테 물었다.

“저 친구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러자 자물쇠가 대답했다.

“자네처럼 꼭 막힌 창고로 살지 않고 활짝 열고 산 상자야.

세상에서는 저 상자를 등대라고 부르다네.” 🌊



2019 기본과정 청년전례학교

6.1(토)pm2시 - 6.2(일)pm4시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대상 의정부교구 청년 누구나 (주일학교 청년 교사 포함) 신청 및 입금기간 4월4일(목) - 5월15일(수)

참가비 1인 50,000원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 접수 후 참가비 입금
(신청서는 청년부 카페 cafe.naver.com/youthujb 에서 다운로드)



☎ 천주교의정부교구 청소년사목국

2019년 노동절 담화문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신명 8,3)

올해로 제129회를 맞이하는 노동절을 기념해서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과,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은 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만들고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국제 노동 기구(ILO)의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 큰 축하의 마음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합니다. 한편, 교회는 이날을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도 기억합니다. 평생 노동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면서도 하느님 구원 사업에 결정적 공로를 남기신 요셉 성인의 전구로 우리의 노동이 각자의 성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대 교황님들의 가르침 안에서 노동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를 기억하게 됩니다. 노동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당신께서 하시던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흙 한 줌을 만들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모든 피조물이 인간 노동을 통하여 잘 보살피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인간 노동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다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그 법을 시행하는 정부에서도, 또 법이 온전히 지켜졌는지를 다루는 법원에서도 최근 들어 노동을 주체

로 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한 사람이 노동을 했을 때,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마지노선의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여러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이 노동을 하는 공간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 설비와 안전 규정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사람이 노동을 할 때, 그의 고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만 보장해 주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이른바 임금, 산업 안전, 고용의 문제 등은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키려 하는지를 나타내는 법적, 제도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의 바탕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노동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빵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빵을 가지고 싶고, 더 커다란 빵을 만들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직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생산성만을 중요하게 여길 때 피조물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아니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을 가꾸고 돌보아야 할 우리 인간의 가치도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노동을 생각하며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신명 8,3)고 하신 하느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본가들에게는 빵의 유혹이 더 큰 힘으로 등장합니다. 규정을 조금만 지키지 않으면, 또 규정



을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 더 큰 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켜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돈의 힘으로 눈앞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여기서 노동 문제의 고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본가들만이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과 관료 또한 같은 유혹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빵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고 그저 나에게 성가신 일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노동 문제에 무관심해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에게도 이 빵의 유혹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약한 다른 노동자들의 처지와 상황에 눈감고, 오직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할 때, 노동자들의 주장 또한 결국 빵의 유혹에 걸려 넘어간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듯 자신의 위치에 약한 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빵을 더 우선시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보다 남들이 더 큰 빵을 바란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겪는 유혹에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규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가치를 선언하고, 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빵의 한계를 규정하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 노동 기구는 지난 100년 동안 이와 같은 노동 관련 국제 규범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러한 규정에 동참했는지, 그러했다면 잘 지키고 있는지 등도 감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1년 국제 노동 기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 노동 기구가 정한 핵심 협약 8가지 가운데 일부는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의 여러 특수한 상황과 기존의 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하느라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노동권 존중에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약한 이들의 노동 문제인 바로 청소년 노동 문제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에 비하여 이번 담화문에서 자세히 소개할 지면을 내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임금, 고용,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어나지만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약자일 수밖에 없기에 이들의 고통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가 더욱 큰 관심으로 청소년 노동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절을 맞아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픔이 하루 빨리 해결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 안에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자리에서 노동을 주제로 한 대화가 더 많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시대의 고민에 함께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옷깃을 여미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노동자의 후보이신 요셉 성인의 전구로 더욱더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봅시다. 🙏

2019년 5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

사랑의 연대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 대신학교

부활 팔일 축제 동안의 복음을 미사 전례를 통해 듣고 또 집에서 조용히 묵상하노라면 잔잔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힘들게 하지 않으며 아무런 절망과 슬픔도 없어서 평화로운 것도 아니고, 다 끝나고 죽음같은 정적이 흐르는 것을 평화라 부르며 억지로 위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격동과 폭풍 같았던 시간의 끝에 폐허같이 남은 빈 무덤에서 그 문을 막았던 돌이 치워지고 걷어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이 품고 있는 평화입니다. 큰 나무로 든든하게 자라나 탐스런 열매와 시원한 그늘을 낼 마음이 싹을 틔우며 주는 평화입니다.

부활 팔일 축제의 복음을 연이어 듣고 묵상하다 보면 빛이 프리즘을 통해 찬란하게 각기 자신의 색으로 빛나는 광경을 그려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색채는 언제나 같은 빛의 원천에서 비롯합니다. 그 빛은 가장 깊은 어둠조차 단숨에 무색하게 합니다. 그 빛은 죽음이 뿌리까지 닿은 동토의 땅에 생명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 빛은 강하지만 온유합니다.

무덤가의 마리아 막달레나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호숫가의 베드로 그리고 방에 문을 걸어 숨어있던 제자들은 생명의 빛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빛은 그들의 존재를 관통하고 각기 자신의 빛깔로 부활을 증언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의 연대기'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체험한 이들에게 주님과 보냈던 시간은 살아있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단지 이러저러한 사건 속에서 단편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이미 그분의 '사

랑의 연대기' 속에서 숨쉬고 살아왔다는 것을 부활의 빛은 깨닫게 합니다.

'사랑의 연대기'는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집니다. 한 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그 사랑의 연대기를 종결시킬 수 없음을, 사랑의 연대기는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될 것임을 부활의 빛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랑의 연대기'는 새로운 차원에서 절정으로 다가갑니다. 마리아는 그 분을 붙들고 있는 대신 형제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을 배웁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눌 때 그분의 얼굴을 알아볼 만큼 절절한 사랑을 배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눈물과 회한을 이제 내려놓고 깊은 강으로 배를 향하는 용기 있는 사랑을 배웁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의 사랑은 변모하며 새로운 '사랑의 연대기'가 시작됩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부활 첫 주간 팔일 축제를 위해 여러 칸타타를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마음을 끄는 것은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칸타타 6번 "밤이 깊어졌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Bleib bei uns, den es will Abend warden" 입니다. 팔일 축제를 마무리하고 세상 속으로 파견되는 이 날에 바흐의 절절한 음악에 귀 기울여 봅시다. 🎧



바흐(Bach) 칸타타 6번
(Bleib bei uns, den es will Abend warden)
"밤이 깊어 졌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교구장 동 정

4월	28(주일)	16시	이주민축제 미사 - 한마음수련원 대운동장
5월	2(목)	15:30	마리아로사 지역아동센터 축복식

+

교구 소식

2019년 청년전례학교(기본과정) 안내

일시: 6/1(토) 14시~6/2(일) 16시 (1박 2일) 접수기간: 4/4(목) ~ 5/15(수)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대상: 의정부교구 청년 누구나(주일학교 청년 교사 포함)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031-850-1460) <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교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5/3(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5월 불나팔미사(정의평화위원회 월례미사) 안내

일시: 5/1(수) 20시 장소: 행신1동 성당

5월 평화사도 월례미사 -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5/6(월) 17시~18시 미사: 이기헌 베드로 주교
 장소: 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

※ 5월 평화사도 월례미사는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국내학술대회 후 신앙교육원에서 봉헌됩니다.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업무: 회계 및 제반업무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졸업증명서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2 마감: 5/3(금) 우체국 소인까지(우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처: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4층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제5회 민족화해분과위원 연수’ 안내

대상: 본당 민족화해분과장 및 위원 장소: 민족화해센터(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일시: 5/25(토) 10시~18시 접수: ~5/15(수)까지, 선착순 100명
 연수비: 1만 원(1인) (5/17까지 입금) 문의: 031-941-6235~6

한국 천주교의 뿌리 : 중국 만주 성지순례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 밀알이 되신 조선 초대 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님과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
 대상: 교구민(선착순 30명) 일시: 8/21(수) ~ 27(화) 6박 7일
 장소: 서만자, 마가자, 소팔가자, 김대건 기념관, 백두산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비용: 옵션포함 약 195만 원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 하느님의 집 후원 현황(3월말 기준)

전월잔액					662,514,126원
3월후원	사제와 개인	본당 입금	기타(미사예물 외)	교구 부서	합계
	12,970,000원	151,130,330원	31,293,517원	5,000,000원	200,393,847원
월말누적잔액					862,907,973원



미사 · 피정 ▶▶

2019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

일시: 5/11(토) 09시~17시
 장소: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경의 중앙전철 도농역, 셔틀버스 운행)
 강사: 송용민 사도요한 신부(인천 가톨릭대 교수)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살레시오회 관구장)
 미사: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외 사제단
 준비: 티켓(5000원) 및 개인 도시락 지참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총무부 010-8729-0025

이한택 주교와 함께하는 첫 토 피정

일시: 5/4 10시~14시 미사(점심제공)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031-952-6324)

가르멜 성시간

일시: 매월 마지막주(수) 13:30~16:30
 장소: 가르멜영성문화센터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피정

주제: 수녀님들의 선교체험 및 소소(昭昭)한 나눔
 일시: 5/18(토)~5/19(일)1박2일 /참제자마을 피정의집
 대상: 만35세 이하 성소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문의: 010-3015-1773 /참가비: 1만 원

성당 설립 4주년 및 후원자의 날 행사

일시: 5/6 10시~14시 미사(점심제공)
 강사: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11시~14시)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031-952-6324)

가르멜 기도학교육

매주(월) 8시 카톨릭플러스친구 가르멜영성문화센터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청년신앙피정

일시: 매월첫(토) 11시~20시
 장소: 서울가르멜수녀원 피정집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효소단식피정: 5/9(목)~12(일) /28만 원
 성경완독피정: 5/24(금)~6/1(토) /48만 원
 문의: 010-3340-0201

파티마 성모 발현 102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미사

일시: 5/9(목) 10시~16시 (미사-14시)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문의: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010-7131-2033

무료 성경 통독 피정

매월 마지막(화) 4/30, 11시~16시 /장소: 마리아
 니스센터 (고양시 토당동 호수로76-17)
 문의: 031-926-3090, 010-5267-1380

첫토성모신심미사

일시: 5/4(토) 11시, 예수성심의 어머니성당
 전세버스대절-서울역 1,4호선 14번출구(9
 시출발), 일산동구청주차장앞(9:30출발),
 인천주안역북광장(9시출발), 동암역(9:05출
 발), 5/2 17시까지 예약필수
 문의: 02-379-8081, 010-4550-6955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일시: 5/4(토) 09:30~12시, 10시 미사
 장소: 호평동 성당(남양주시 호평동 556번지)
 문의: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010-7131-2033

예수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가난으로의 초대 /최준열 신부
 일시/장소: 5/3(금) 10시~15:10 /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제주명현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아래일정은 양북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기간: 5/4~7(추자도), 5/10~12, 5/15~17
 (제주성모의밤),
 5/19~22(추자도), 5/31~6/2
 접수: 02-773-1463/064-756-6009

미사와 함께하는 목주기도 100단

일시: 5/1(수) 13시~16:30
 미사: 김영철 베드로신부(교구 담당사제)
 장소: 풍동교육관 (식사동 514-26)
 ※성인 호칭기도와 함께하는 기도회
 일시: 5/8(수) 14시~15:30 장소: 동일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철야기도회(미사와 함께)

일시: 매주(금) 21:30~02시 마두동 성당(5/3)
 주제: 성체 헌사와 함께하는 기도회
 강사: 김영철 베드로신부(교구 담당사제)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마리아사제운동 첫 토요 신심미사와 체나콜로

일시: 5/4(토) 10시 미사, 11시 기도
 장소: 지금동 성당(동부), 후곡성당(서부)
 준비물: 성모님 메시지 합본, 목주
 문의: 교구 체나콜로 봉사회 010-9272-4660

예수수도회 청년주말피정

(영신수련 기반으로 한 침묵피정)
 일시: 5/11(토) 3시~12(일) 4시
 하루피정 5/5(주일) 10~4시
 대상: 미혼 젊은이(33세이하) *선착순
 장소: 서울 오류동 수녀원 /010-9746-1585

성가소비녀회 개별동반 피정

연중수시 010-5906-8099

행주 성당 성모 신심 미사(전대사)

일시: 5/4(토) 11시 (미사, 목주기도)
 매월 첫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성경통독 성체신심 치유피정

내용: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피정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본원)
 일시: 5/10(금)~13(월), 6/6(목)~9(일),
 7/26(금)~29(월) 장소: 도미니코수도원
 피정비: 36만 원(3박4일기준, 호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교육 · 모집 ▶▶

백송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모집(일산복지관)

대상: 장기요양등급판정어르신(3,4,5등급)
 기간: 수시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문의: 031-975-1344
 www.ilsanwelfare.or.kr 공지사항 참조

교하성당 반주자 모집

교중미사 성가대 반주자 모집
 이력서 제출 후 개별 면담
 문의: 성당 사무실 031-948-9064

금촌2동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문의: 김 오섭 010-3776-1207

김수환 추경경 선종 10주년 기념 영성 특강

대상: 관심 있는 분 누구나(비신자 포함)
 일시: 6/4~6/25(매주 화, 14시~16시)
 장소: 서울 명동대성당 문화관 교스트홀
 강사: 박승찬 교수(김수환추경경연구소장),
 박종양 신부(가톨릭대학교 교수)
 회비: 1만 원(총 4회), 자선기금으로 사용 예정
 신청: 02-777-2013, www.clas.or.kr, 모
 바일앱 '서울평협'
 주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성음악아카데미 모집

접수 및 등록: 4/29(월)~5/31(금), 3개월 수업(6,7,8월)
 과목: 오르간, 피아노, 성악, 합창지휘, 작곡,
 CCM, 관악기, 현악기, 바로크악기. 앙상블(플
 루트,리코더,기타,현악,그레고리오 성가) 등
 대상: 연령무관, 초급부터 최고급과정까지
 장소: 교회음악대학원(지하철 서울역, 총정
 로역) /문의: 02-393-2213~5
 http://www.casm.site

시스미나 성가발성교실 모집(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종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
 신상옥과 함께하는 생활성가(월) 11시
 성가반주 오르간 교실(개인레슨)

전진상영성센터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02-726-0700)
 전문심리상담 : 가족치료, 개인,부부, 종합심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영어성경: 마르코복음 /일시: 5/3~7/19 매주 (금) 11시~1시 (문묘안나수녀 메리놀수녀회)
 가치와 동기 그리고 새로운 전망세우기 작업
 일시: 5/1~29 매주(수) 오전반10시~1시, 저녁반7시~10시

카드와 도표로 배우는 수지애니어그램
 일시: 5/11, 5/25 매월 2,4주 (토) 10시~17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임양상담 및 임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ac.or.kr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영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관상기도 배우기(제19차) 선착순 30명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
 일시: 5/7(화) 14시~16시(6주간)
 장소: 행주 성당(회비무료)
 문의: 031-974-1728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 자원활동가 모집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지역 자원활동가 모집 및 교육 실시
 일시: 5/14(화) 14시~17시 /교육비: 무료
 문의: 031-873-1368 www.ggbb1366.or.kr

2019년 제5회 가톨릭전례음악(시원)하계세미나

과목: 전례발성,합창지휘,그레고리오성가및 반주법,시편창법,시간전례
 강사: 이호중 라파엘외 12명
 회비: 15만 원(1박4식)
 일시및장소: 7/26(금)~7/27(토),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 /문의및접수: 010-8417-0701, 한국가톨릭전례음악아카데미
<http://cafe.daum.net/Musicasacra>

카프성모병원 3교대 간호사 모집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한국중독연구재단』산하 병원. 서류접수마감 4월30일
 홈페이지 www.karf.co.kr 참조

2020~21영성코스 사전안내

장소: 가르멜영성문화센터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생활속의 이나시오 기도모임 모집

기도여정을 통해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이해하며,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 상상기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 대상입니다.
 첫모임: 오전반 5/13(월) 10시
 오후반 5/14(화) 20시
 장소: 중산 성당 203호
 문의: 010-9950-9974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후기 신입생 모집

전공 : 독서, 상담, 한국어교육, 유아, 진로진학상담, 특수, 직업특수, 평생
 모집: 5/7(화)~19(일)
 면접: 5/24(금) 18:30~
 문의: 02-2164-4173,4176,4787
<https://ged.catholic.ac.kr>

에리코클리닉 봉사자(치위생사) 모집

'에리코 클리닉'은 2003년부터 영세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해 온 춘천교구 사회사목국 소속단체입니다. 최근 진료확대를 위해 치과 치위생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의: 033-264-3547, 010-8684-3547
 오세호 신부

현대인을 위한 교부영성 특강

일시: 5/18(토), 14시~16시
 주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길
 강사: 최원오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태학원장) 수강료: 1만 원
 장소: 장충동 분도빌딩 5층 봉헌회관
 신청: 분도출판사 02-2266-7152



안내 · 기타 ▶▶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5/14 독일 동유럽 4개국 12일 365만 원
 5/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6/3 독일 발칸 메주고리에 12일 385만 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6/4, 9/17 이스라엘,요르단10일 289만 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10일 335만 원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10일 299만 원
 6/23, 9/1 나가사키4일 949,000원

일본성지순례 (가고시마,나가사키,아키타)

출발: 매월 1회, 4박5일 / 64만 원
 주관: 가고시마교구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645-9028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5/14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14일 390만 원
 6/3 발칸반도 및 메주고리에 11일 370만 원
 7/1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영국 12일 4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6/2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원
 6/12 발칸반도(메주고리에) 12일 375만원
 6/15 이스라엘 9일 360만원
 문의 : 02-2281-9070 / www.cttour.org

제 54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1~8/10(3주)
 대.일반: 6/30~8/11(6주)
 공통: 세계 연수생들과 연수 + 다양한 경험
 설명회: 5/11(토) 2시 명동성당내 가톨릭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5/5(주일) 14시~18시	정릉본원 강당	010-4096-5973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가르멜수도회	매월	지역별 장소	010-9986-5680
	한국외방선교수녀회	5/4(토) 14시, 5/5(주일) 10시, 14시	명동성물방	010-3015-1773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시(개인 성소식별 동반)	길음동 본원	010-9900-5811



고해성사(3) :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루카 15, 21)

왕태연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하느님과 의 일치와 친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과의 친교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 없고, 그 회복을 위한 간절함 또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고해성사를 위해 필요한 몸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회개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음과 같은 참회의 행위가 필요하다. 마음에는 통회가, 입에는 고백이, 행위에는 온전한 겸손과 유효한 보속이 있어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50항)

고해성사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양심성찰”과 “통회”입니다. 양심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자신이 죄로 인해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깨닫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 ‘참회의 시작점’에조차 서지 못한다면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은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51항)

죄로 인해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면 이제 하느님께로 되돌아갈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의 단계를 “정개(定改)”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백을 통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결심을 되새기는 매우 책임감 있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기로 한 굳은 결심이야말로 죄를 고백하는데 있어서 큰 용기가 되 어줄 것입니다.

이로써 마침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값을 보속(補贖)이라고 부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59항)

보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받는 고통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속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며,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과 화해하는 고해성사는 참된 영적 부활과 하느님 자녀로서 지니는 품위와 삶의 선익을 회복시켜 주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인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68항) ☺